

# 혼자는 안 좋다

It Is Not Good to be Alone

창세기 1:26-27; 2:18-25; 요한복음 17:2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월 30일 설교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8**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25**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1**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안 좋다

창세기 일 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구나!”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는 “정말 좋구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 장 본문에서는 “안 좋구나!” 하십니다. 이미 다 마음에 드셨는데 갑자기 왜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창세기 이 장은 창세기 일 장이 끝난 다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창세기 일 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새로 쓴 것입니다.

창세기 일 장에서 이 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하나님이 옛세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동산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말에 하루 쉬고 또 출근을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구나” 하신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이 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동안 안 좋았던 한 가지를 어떻게 다시 좋게 만드셨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구나!” 하셨으니까 천지창조는 안 좋은 걸 좋게 만드신 과정입니다. 그렇게 좋게 만드시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일 장 끝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좋구나!” 하셨습니다.

뭐가 안 좋다 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갖추었습니다. 에덴동산에는 맛있는 과일이 가득했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도 있었고 순종해야 할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먹고살 것뿐 아니라 뜻을 찾아 보람되게 살 조건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좋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신 까닭은 꼭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 남과 여?

오늘 첫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게 번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할 때 “남녀”는 “암수”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남자한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러야지” 할 때 나오는 “남자,” “여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동물도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동물을 암수로 만드셨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물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만드실 때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라서 안 좋다 하신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시기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배필”이라 하면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본문을 보고는 하나님이 총각 아담이 외로워 장가를 들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도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전 11:9). 오늘 두 번째 본문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라 해서 창세기 이 장을 아담 하와가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하시지 않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본디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나 하신 다음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원문은 “배필”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곁에 나란히 있는 사람, 짝, 파트너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짝”이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배우자도 짝이긴 하지만 원문은 남자한테는 여자가 필요하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 돕는 짝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돕는” 짝입니다. 심심해서 “놀아줄” 짝도 아니고 혈기가 넘쳐 “싸울” 짝도 아니고 “돕는” 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어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돕는 짝을 만들겠다 하셨으니 사람이 혼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안 좋았습니다. 더 있어야, 하나를 더 만들어야, 그래서 돕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역작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신 회심의 작품 아담이, 만들어 놓고 보니 미완성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총각 혼자 외로우니까 처녀를 하나 붙여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걸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나 하신 다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다? 동물과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려고요.

이름을 짓는 일은 그 대상과 나를 잇는 일입니다. 그 대상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새를 데리고 오시자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피조물을 다스린 거지요. 그런데 이름을 다 지어줄 때까지 돕는 짝은 못 구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뜻이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번역 20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렇지만 아담의 돕는 짝은 찾지 못했다.”

이름을 부른다 하면 생각나는 시인이 있지요? 김춘수입니다. “꽃”이라는 시에서 이름을 불러 너와 내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걸 노래했습니다. 김춘수 식으로 표현하면 아담이 새와 동물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아담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대상,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와서 꽃이 될” 대상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존재방식

혹, 하나님이 무리를 하신 건 아닐까요? 아무리 그대로 그렇지 동물 가운데 돕는 짝을 찾아보라 하셨을까 싶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드신 다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생령”이 되었다 했지요? 이 생령이라는 말이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온갖 생물을 만드셨다 할 때의 생물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새와 동물도 아담처럼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아담도 동물도 새도 다 같은 생물입니다.

요즘 집에서 동물을 많이 기르는데 애완동물이라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자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은 안 그랬습니다. 원시인 아담이 진화가 덜 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사람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동물이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돕는 짝이라 했습니다. 돕는다 하면 보통 뭘 “하는” 걸 돕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어준 걸 보니까 짝이 없어 일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물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 주었으니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한 건데 유치원도 안 다닌 아담이지만 혼자서도 잘 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데, 다시 말해 사는 게 힘들어 돕는 짝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돕는 짝인데 일을 돕는 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독처”라 했는데 배우자 없이 독신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만드신 게 돕는 짝이니 아담에게 필요한 도움은 뭘 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아니라 그냥 있는 데 필요한 도움, 존재를 위한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짝을 찾기 전에는 아담이라

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요 돕는 짝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혼자 있어서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형상

함께 있어야 사람이고 함께가 아니라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만 갖고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피조물 가운데 가장 멋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실 때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청유형을 쓰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같이 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말씀하신 곳이 두 곳이 더 있습니다만 세 경우 모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26 - 사람 창조를 의논, 3:22 - 사람의 달라진 상태, 11:7 - 언어 혼잡하게 하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일 수가 없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몸을 둘로 나누신 다음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혼자는 안 좋아서 하나를 더 만드실 때 그냥 흙을 쓰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아담의 몸을 갖고 만드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덴동산에는 흙이 많았습니다. 온갖 과일나무가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나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아담 몸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으면서 하와는 아담하고 다르게 그냥 흙으로 안 만드시고 아담의 몸을 일부 떼어내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로 둘을 만드신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신데 그 세 위가 따로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고 또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 곁에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천 명 만 명을 만들어도 하나님하고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둘을 만드시고 이 둘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다음 비로소 “야, 정말 좋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일 장과 이 장은 동시에 끝이 나는 셈입니다.

## 이제 됐다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잠을 재우셨습니다. 보통 재우신 게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죽은 듯 자게 하셨으니 아담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과 새를 만들어 데리고 오실 때와 똑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사람이구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아담은 이번에도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한 마디 했습니다. 원문을 제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야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구려! 남자한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러야겠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인간이 처음 자의식을 가지는 순간이요 사람이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자가 제 몸에서 나온 줄 아담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담이 혼자 있어 안 좋다는 걸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아담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허전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오시자마자 “드디어 찾았다!” “이제는 됐구나!”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짝으로 사람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더 만드신 사람은 그럼 아담보다 더 개량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지요? 도움이 필요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도움 짝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더 만드셔도 마찬가지요, 열 명 천 명 만 명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아니 혼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니까? 지난번에 사람은 자유요 책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묻습니다. 사람이 뭐니까? 같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혼자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사람답습니까? 함께일 때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혼자일 때는 안 좋습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나만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것, 함께 존재하는 것, 혼자 있으면 안 좋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영광입니다.

## 죄는 가른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둘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둘을 진흙 이기듯 뭉개어 다시 한 몸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둘이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이 육체관계를 가지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증거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지 자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자녀를 염두에 두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시고는 곧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가 뭔지는 다 아시지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죄를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그래서 둘이 하나를 이루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고 다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 뜻하신 대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 두 사람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벗었던 몸을 가렸는데 하나였던 두 사람이 다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옷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옷이 아니지요. 죄가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둘이 입은 옷은 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가인과 둘째아들 아벨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 하셨는데 둘은 형제 사이면서 나누어졌습니다. 함께 있어야 사람인데 하나가 하나를 죽여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사라졌지만 죽인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죄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으니 돕는 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어야 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로 나누어졌습니다. 가인 아벨처럼 형제가 나누어지고, 라멕처럼 부부가 나누어지고, 끼리끼리 모여 너와 나로 갈라졌습니다. 핏줄이 다르다고 갈라져 싸우고, 남녀 성이 다르다고 하나가 하나를 억누르고, 돈 좀 가졌다고 힘 좀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짓밟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한 몸에서 만드신 사람, 그래서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갈래갈래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 하나님과 사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죄뿐 아니라 죄가 가져온 온갖 아픔 슬픔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없애시는지 그건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죄와 그 결과를 없애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뜻하셨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갈래갈래 찢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다음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올리신 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기도제목이지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17:11, 21, 22, 23). 주 예수를 모르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은 죄가 만든 모든 벽을 허물고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차별도, 인종차별도, 빈부차별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 예수께서도 그런 사랑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

자가 성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가 또 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닮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오직 우리가 하나일 때, 너와 내가 돕는 짝으로 서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과 또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1-32). 아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하나를 더 만드신 그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까지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리켜 비밀이라 했습니다. 큰 비밀입니다.

##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 저기 바깥에 있는 모두가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무슨 사이입니까? 그걸 알려면 내가 사람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날 때부터 같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부모 없이는 세상에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 나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사는 거야 좋지요.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니 문제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내 이웃을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나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제거했고 이제는 서로 돕는 짝이 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 곧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 되찾은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 그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혼자일 수 없는 게 사람인 줄 깨달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아 서로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게 도움으로써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그 영광을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때 그들도 똑같은 사람, 곧 혼자일 수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서로 도와야 되는 사람인 줄 깨달고 우리에게로 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시편 133편이 말씀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 우리의 책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뒤덮이게 되자 그 악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악에서 선으로 바뀐 우리 아닙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된 우리입니다. 안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아직도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상태로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기를 때,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더불어 내 식구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무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함께야 되고 그렇게 함께인 줄 알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 창조 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다시금 “정말 좋구나!” 말씀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